

# 봉암 월주와 해인사

한상길\*

## • 목 차 •

- I. 머리말
- II. 봉암 월주의 생애
- III. 백용성과 해인사
- IV. 봉암 월주와 해인사
- V. 맺음말

---

\*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 『大覺思想』 제30집 (2018년 12월), pp.9-43.

## 한글요약

이 글은 봉암과 해인사와의 인연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인사는 스승 용성의 본사였으므로 봉암은 일찍부터 이곳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의 생애에서 해인사는 수행과 전법, 그리고 교화를 펼친 가장 중요한 사찰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봉암의 전 생애를 일별하고, 용성의 해인사에서의 활동과 봉암의 수행과 포교가 해인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용성이 직접 제작한 옥석 호계첩, 봉암의 친필 엽서, 해인사 시절 사진 등의 몇몇 자료를 새롭게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해인사에서 봉암에게 가르침을 받은 여러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봉암의 위상을 이해하였다.

봉암은 스승 용성의 뜻을 이어 해인사에서 전법에 매진하였다. 1938년 서른의 나이에 법보학원의 강사가 되어 교학을 펼쳤다. 해인사는 20세기 들어 보통학교 등의 근대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전통 강원 또한 가장 많이 운영하는 등의 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봉암은 1955년까지 18년 동안 강사로서 후학양성에 큰 업적을 남겼다. 강원의 강사가 본사 주지보다 더 존경받았던 시절 봉암은 『초발심자경문』, 『금강경』, 『능엄경』에 이르는 다양한 교학을 전수하였다.

1944년에는 산청포교소의 주지, 1948년에는 영림공사의 상무를 맡는 등 사관의 소임에도 충실하였다. 봉암에게서 교학을 배운 여러 수행자들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커다란 동량이 되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를 ‘유명한 강백’으로 평가하였다. 1955년 정화운동의 와중에서 봉암은 해인대학의 교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까지 15년간의 해인대학 교수 시절 봉암은 해인사에서처럼 여전히 교학을 전수하고, 포교에 매진하였다.

## 주제어

봉암 율주, 변진설, 백용성, 해인사, 백양사, 호계첩, 해인대학, 마산대학.

## I. 머리말

봉암 월주(1909~1975)는 한국 근현대불교의 격변기를 살다간 스님이다. 주권상실기의 험난한 시대에 태어나 일제하에서 한민족의 차별에 저항하다가 구속되는 비운을 겪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영특했던 그가 빼앗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다. 일제의 감시 하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운명처럼 절을 찾았고, 마침내 삶의 목표와 지향을 불교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백양사에서 시작한 출가의 삶은 스승 용성을 만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을 걷는 指南이 되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봉암의 삶이 주목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마성의 연구를 시작으로<sup>1)</sup> 문도회와 대각사상연구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의 삶과 사상 등 종합적인 면모가 알려졌다.<sup>2)</sup> 필자는 이 자리에서 「유물로 보는 봉암 월주의 생애」라는 논고를 발표하였다. 이 글은 제목 그대로 그가 남긴 이력서, 안거증, 계첩, 편지 등의 유물을 토대로 그의 생애를 검토하였다. 근현대의 고승들 가운데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유물을 남긴 인물은 극히 드물다. 삶의 소중한 흔적들을 고이 간직한 봉암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이다. 또한 스승의 유품을 고스란히 보존, 선양하려는 문도들의 노력 또한 칭송받아 마땅하다.<sup>3)</sup>

이 글은 봉암과 해인사와의 인연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인사는 스승 용성의 본사였으므로 봉암은 일찍부터 이곳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의 생애에서 해인사는 수행과 전법, 그리고 교화를 펼친 가장 중요한 사찰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봉암의 전 생애를 일별하고, 용성의 해인사에서의 활동과 봉암의 수행과 포교가 해인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용성이 직접 제작한 옥석 호계첩,

- 
- 1) 이수창(마성),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22, 대각사상연구원, 2014.
  - 2)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 학술세미나, 봉암문도회·대각사상연구원, 2016. 10. 21.
  - 3) 봉암의 유물은 대부분 진해 대광사에 소장되어 있고, 일부는 원융호국사에도 있다.

봉암의 친필 엽서, 해인사 시절 사진 등의 몇몇 자료를 새롭게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해인사에서 봉암에게 가르침을 받은 여러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봉암의 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 II. 봉암 월주의 생애

봉암은 1909년 11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337번지에서 태어나 이름을 邊鎭契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邊舜基, 어머니는 曹堯基이다. 변순기는 일찍부터 애국계몽 운동과 국권회복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광주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었고,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언도받았다. 출옥 후에도 민족운동에 헌신하였고, 1992년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의 건국포장을 받았다.<sup>4)</sup>

봉암은 어려서는 장안읍의 장안서재에서 사서삼경을 배웠다. 1920년(12세) 4월 장성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성적이 우수하여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월반하였다. 1925년(17세) 3월 6년 과정의 보통학교를 5년 만에,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곧바로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였다.<sup>5)</sup> 1928년(20세) 5월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퇴학당하고, 경찰에 검거되었다. 봉암은 동지 9명과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1928년 12월 4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출옥하였다.

일제의 감시 하에 자유를 구속당한 봉암은 좌절에 빠졌으나 곧 새로운 삶의 지표를 출가에서 찾았다. 1929년 1월초 봉암은 백양사 약수암에서 ‘月舟處士’라는 이름으로 불교에 입문하고, 운문암선원에서 하안거를 지냈다. 1929년 4월 8일 마침내 백양사 금강계단에서 曼庵和尚의 가르침으로 사미계·보살계 및 구족계를 받았다. 이때 받은 호계첩이 전한다. 당

4) 김순석,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활동 - 해인대학과 마산대학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26, 2016, p.150-151.

5) 邊月周, 「나의 出家時節(上)」, 『불교』 16호, 월간불교사, 1971. 10, p.42.

시 갈마아사리는 曼庵 宗憲, 전계화상아사리는 錦海 瓏英, 교수아사리는 淸河 敬憲이었다.

계를 받은 이후 봉암은 백양사 雲門禪院에서 하안거 정진에 들어간다. 이때가 스님으로서의 첫 안거였고, 1943년 7월까지 10하안거를 성료하였다. 1930년 3월 10일에는 백양사에서 柳錦海 강백으로부터 사미과 및 사 집과를 졸업하였다. 또한 이 해 4월 8일에는 백양사 금강계단에서 다시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았는데, 사미계사는 柳錦海, 비구계사는 백용성이었다. 이때부터 용성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읍 內藏寺禪院에서 하안거(1931. 7), 경기도 양주 望月寺禪院에서 동안거(1932. 1)를 지냈다. 망월사는 용성이 1925년에 시작한 만일참선결사의 결사도량이었다. 용성이 조실에 추대되었고, 50여 명의 대중이 결사 수행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1926년 5월 결사도량을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하였지만 망월사는 용성의 인연처였고, 봉암은 은사 용성의 지도로 이곳 망월사선원에서 동안거를 지냈던 것이라 생각된다.

봉암은 망월사 동안거를 마친 후 곧바로 구례 화엄사로 가 교학공부에 매진하였다. 당시 화엄사의 강사는 대강백 陳震應이었다. 1933년 7월까지 『금강경』, 『기신론』, 『능엄경』, 『현답』 등을 공부하였다. 봉암은 출가한 후 먼저 敎를 배우고 나중에 禪을 닦았다. 당시 불가의 전통이었던 捨敎入禪의 길을 걸었다.<sup>6)</sup> 1936년 1월 24일에는 백용성에게 전법계를 받았다. 이때 받은 전법계문이 진해 대광사에 전하는데 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 정상에는 바위가 높이 솟아 뻗죽뻗죽하고	山頭石矗矗
바위 아래에는 물이 맑고 깨끗하게 흐른다.	岩下水澄澄
독서하다가 잠을 자니	讀書又睡眠
꽃가지에서 새소리가 어지럽다.	花枝鳥聲亂

6) 이수창(마성), 앞의 글, p.134.

이 전법계문은 용성이 지은 『修心論』에도 수록되어 있다. 용성은 檀庵, 德雲, 普光, 檜庵, 道庵, 東軒, 雷默, 鳳庵 등 8명의 제자들에게 각각 계송을 지어주었다. 뒤이어 “너희들은 계송의 뜻을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풍월을 읊조리는 것과 같은 것[吟風弄月]이 아니다. 本分宗師의 본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대각의 宗旨로 삼아 널리 중생을 구제하여라. 대각의 마음 도장[大覺心印]을 허공에 찍으면 그 도장의 모습이 완전히 없고 이 도장을 물에 찍으면 흔적은 있지만 그 모습은 볼 수 없고, 이 도장을 진흙에 찍으면 그 께맨 흔적이 완전히 드러난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一句, 二句, 三句로 널리 중생을 제도해라. 우리의 대각 성존이 이와 같은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셨으니, 나의 가르침의 이름을 ‘대각교’라 한다.”<sup>7)</sup>고 하였다. 한편 이 전법계는 사사로이 전해준 것이 아니라 여법한 범백상속식을 거쳤고, 이 내용이 당시 『불교시보』에 게재되었다.<sup>8)</sup> 1936년(28세) 봉암은 출가한 지 불과 7년 만에 스승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았다. 입산 즉시 백양사에서 참선하고, 화엄사에서 교학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다시 망월사에서 정진하였다. 쉽 없는 수행의 노력이 은사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1937년에는 함양 화과원에 있었고, 이해 7월에는 순천 송광사 三日禪院에서 하안거를 마쳤다. 1938년 1월 화과원에서 동안거를 마친 후, 해인사의 강원 法寶學院 강사로 선임되었다. 11월에 해인사에서 大禪 품계를 받았다. 이듬해 1939년 여름에는 강원도 회양군의 마하연에서 하안거를 지냈다.

1939년 11월에는 재단법인 禪理參究院에 편입된 朝鮮佛敎禪宗叢林의 이사를 맡았다. 194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화과원 선원에서 동안거 수행을 하였다. 1941년 3월에는 4일부터 13일까지 선학원에서 열린 遺敎法會에 고승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 당시 한국불교의 대표적 고승 40

7) 『修心論』, 『백용성대종사총서』 ①,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동국대출판부, 2016, p.796.

8) 『불교시보』 8호, 불교시보사, 1936. 3. p.6.

여 명이 고승대표로 참석하였다.<sup>9)</sup> 송만공, 박한영, 하동산, 국묵담, 이운허, 이청담 등인데 여기에 봉암이 포함되어 있다. 33세 젊은 나이에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 반열에 올라 있었다. 4월에는 해인사에서 大德 법계를 받았다. 7월부터 이듬해 1942년까지 화과원에서 수행하였다.

1944년(36세) 4월 25일에는 해인사의 山淸 포교사에 선임되었다. 1946년(38세) 1월에는 해인사의 교무를 맡았다. 1947년 8월 23일에는 해인사 「龍塔禪院創建上樑記」를 작성하였다. 1948년(40세) 9월 1일에는 해인사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해인사 營林公社의 常務取締役に 선임되었다.

봉암은 1950년대 들어 한국전쟁과 뒤이은 불교계의 혼란을 겪으며 해인사를 떠나 경남 진주의 해인대학 교수가 되었다. 진해 대광사에 머물며 교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 1970년까지 15년간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였다.

1962년 4월에는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의 비상중회의원에 선임되었다. 1964년 6월에는 동국역경원의 역경위원을 맡았다. 1970년 2월에는 교수직에서 사퇴하였다. 당시 봉암은 종교과 소속이었는데 마산대학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과시켰기 때문이었다. 학과는 사라졌지만 봉암은 1970년 전임대우강사로 선임되어 1971년 8월까지 교양과목 등을 강의하면서 교육활동을 계속하였다. 이후 그는 집필활동에 전념하였던 듯, 1970년 7월 이후 『불교』지에 다양한 주제의 논고를 기고하였다.

봉암은 1975년 2월 4일 만년을 지내던 진해 대광사에서 입적하였다. 2006년 11월 17일에는 광주학생운동의 공훈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 표창장(제159031호)을 받았다. 2016년 10월 21일에는 봉암문도회와 대각사상연구원이 주최한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봉암의 생애와 사상, 위상을 선양하는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9) 김광식, 「유교법회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한국 현대사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pp.236-237.

### Ⅲ. 백용성과 해인사

해인사는 용성의 출가 사찰이다. 그의 해인사 출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재출가이다. 1877년 14세 때 출가를 결심하고 남원군 교룡산 德密庵의 慧月에게 허락을 받았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sup>10)</sup>

1879년 용성은 해인사 극락암의 華月을 찾아가 출가하였다. 화월을 은사로 相虛 慧造를 戒師로 득도하였다. 용성의 출가시기에 대해서는 16세, 19세의 두 가지설이 있다. 한용운이 찬한 「용성대선사사리탑비명」(해인사 용탑선원)에서는 19세라고 하였다. 『용성선사어록』에도 기묘년 19세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묘년은 16세에 해당되며, 비명에서 밝힌 법랍 61세로 헤아리면 출가는 16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용성문도회에서는 어록의 연대와 법랍을 기준으로 기묘년 16세로 결정하였다. 1994년 伽山 智冠이 찬술한 「용성조사행적비」(해인사)에도 16세, 1879년으로 기록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이 해인사는 용성의 출가 본사였고 스스로를 ‘伽倻山人’이라고 하였다.<sup>12)</sup> 그러므로 그의 제자 봉암 월주와 해인사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므로 해인사와 봉암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용성의 해인사 행적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sup>13)</sup>

1885년 4월 용성은 송광사 삼일암에서 하안거 수행을 하였다. 이때 『전등록』을 공부하다가 “달이 당겨진 활과 같으니 비는 적고 바람은 많다.[月

10) 「용성선사어록」, 『백용성대종사총서』 ①, 앞의 책, p.41.

11) 한보광, 「용성스님의 전반기의 생애 -산중수행기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창간호, 1998, p.5.

12) 「옥석 호계첩판」,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용성이 직접 제작한 호계첩으로 계첩 오른쪽에 ‘伽倻山人 白龍城 製’라고 새겼다.

13) 용성의 생애와 행장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선학들의 연구가 있다. ① 한보광, 「용성스님의 전반기의 생애 -산중수행기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창간호, 1998. ② 한보광, 「龍城스님의 후반기의 생애」(1), (2) 『대각사상』 3(2000), 4(2001) ③ 김광식,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이를 기반으로 『백용성대종사총서』에는 자세한 연보가 수록되어 있다.



似灣弓 少雨多風]”<sup>14)</sup>는 구절을 보고 깨달았다. 이 구절은 송나라 可觀(1091~1182)선사의 법어에서 유래한다. “구름 한 점 없는 청천 하늘에 반달이 흰히 비추고 있구나. 너희는 어찌하여 번뇌 망상의 바람은 많고 감로법우는 이리도 적으냐?”는 뜻이다. 이후 용성은 해인사로 돌아와 그때의 깨달음을 계송으로 읊었다.

가야산의 명성과 평판이 청구에 높으니	伽倻名價高靑丘
마름 밝힌 도사들이 얼마나 왕래하였던가	明心道師幾往來
우뚝 솟은 기암은 비늘처럼 포개어져 있고	矗矗寄巖疊鱗高
빽빽한 잣나무는 서로 이어져 푸르구나.	密密柏樹相連靑
무한한 흰구름은 골짜기마다 가득하고	無限白雲滿洞鑽
크게 울리는 범종 소리는 푸른 하늘에 사무친다.	洪鍾轟轟碧空衝
고개 돌려 산을 보다가 저녁노을에 취해	回首看山醉靑霞
나무에 기대어 깊이 졸다 보니 해는 벌써 기울었네.	倚樹沈眼日已斜 <sup>15)</sup>

1891년에는 해인사의 月華講伯 회상에서 『선문염송』을 공부하였다. 1901년 2월에는 해인사에서 霽山(淨源, 1862~1930)선사와 법거량을 하였다.

용성이 제산에게 물었다.  
 “목침이라고 부르면 걸려드는 것이고, 목침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등지는 것이다. 말해! 어서 말해보게!”  
 그러자 제산이 목침을 던져버렸다. 다시 용성이 물었다.  
 “산하(山河)라고 부르면 걸려드는 것이고, 산하라고 부르지 않으면 등지는 것이다. 말해! 어서 말해보게!”  
 제산은 말없이 잠잠하였다.

1906년 1월 용성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궁중의 林尙宮에게 해인사 장경

14) 『경덕전등록』, 「南嶽金輪可觀禪師」

15) 「용성선사어록」, 『백용성대종사총서』 ①, 앞의 책, pp.44-45.

관을 보수하는데 시주할 것을 권하였다. 임상궁은 기꺼이 6천원을 회사하면서 국왕 고종이 2만 냥의 국고를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판전과 대장경판 등을 보수할 수 있었다. 이해 4월에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하안거 상당법문을 하였다. 이 무렵 백련암의 역대 조사 仁坡 由安(?~1846), 信海 瑞章 등의 진영에 影讚을 썼다.

1908년에는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계단을 열어 幻鏡 在修(1887~1983) 등에게 비구계를 주었다.<sup>16)</sup> 1909년 3월에는 해인사 원당암에서 미타회를 창설하였다. 여기서 참선수행과 함께 염불선을 수행법으로 채택하였다. 당시는 전통적인 간화선 일변도의 수행 풍토였다. 이때의 염불선 수행은 용성이 훗날 서울로 상경하여 대중불교운동을 전개하는데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sup>17)</sup>

이 미타회에서 행한 법문 내용이 자세히 전한다. 주제는 趙州의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와 당나라 南泉, 歸宗, 麻谷선사 등의 수행담이었다. 법문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선사께서 재차 말씀하셨다.

“옛날에 雲蓋寺 화주승이 화주 인연을 받기 위하여 산을 내려갔다. 어떤 관리가 어디에서 오셨냐고 물으니, 화주승이 운개사에서 왔다고 대답하였다. 관리가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고 물으니, 화주승이 기와를 엮으려 한다고 대답하였다. 관리가 이미 구름으로 기와를 엮었는데 다시 기와를 엮는 것은 어째서냐고 물었다. 화주승이 대답하지 못하자 관리가 시주하지 않았다. 지금 대중들에게 물겠다. 무엇이라고 그에게 대답해야 하겠는가?”

대중들이 모두 대답이 없자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관리는 흰 구름으로 기와를 엮고, 흐르는 냇물로 거문고를 연주하니, 자신에게 사람들을 점검하는 수단이 있었지만 화주승은 과연 거짓말쟁이구나. 대중들은 시험 삼아 일러 보라.”

16) 이지관, 『한국불교계율전통』,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p.349.

17) 한보광, 「용성스님의 전반기의 생애-산중수행기를 중심으로」, 앞의 글, p.12.

잠시 가만히 있다가 큰소리로 고향치셨다.

“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구나!”

법상을 한 번 치고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오셨다.<sup>18)</sup>

1909년 용성은 대적광전에서 설법하였고 이 해에 산내 약수암의 불화 봉안법회에 증명법사로 참여하였다. 이 때의 법회를 ‘불상 점안식’이라고 하였으나<sup>19)</sup> 불화 봉안법회인 듯하다. 性周의 청으로 용성은 법상에 올라 “오늘 대중들이 도량에 함께 모여 불화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는가? 어서 일러 보라. 수미산으로 붓을 만들고 허공으로 종이를 만들며 대지로 먹을 만들어서 저 불화를 그릴 수 있었는가? 노루의 털로 붓을 만들고 닥나무껍질로 종이를 만들며 연적으로 물을, 그을음으로 먹을 만들어 아교와 채색으로 저 불화를 그릴 수 있었는가? 설령 그대들이 31相은 그렸다 해도 梵音 1相을 어떻게 그리겠는가?”<sup>20)</sup>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용성은 가야산에서 여러 법문을 펼치는 한편, 南泉 光彦<sup>21)</sup>, 晦玄 등의 선남들과 다양한 선문답을 주고받으며 수행의 깊이를 더해갔다. 이후 해인사를 떠나 1920년 초까지 칠불선원, 범어사, 백양사, 서울 등에서 수행과 포교, 그리고 종단활동 등에 매진하였다. 1910년 지리산 칠불선원의 宗主를 맡아 이곳에서 『귀원정종』을 저술하였고, 이후 주로 서울에서 종단활동에 매진하였다. 1912년에는 일본 조동종에 귀속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하여 한용운, 박한영, 김경운 등과 임제종을 창립하여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용성은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의 開教師長에 취임하고, 개교식에서 한국불교의 전통과 법맥에 대해 법문을 펼쳤다.

18) 「용성선사어록」, 『백용성대종사총서』 ①, 앞의 책, p.14.

19) 「용성선사어록」, 『백용성대종사총서』 ⑧, 앞의 책, p.201.

20) 「용성선사어록」, 『백용성대종사총서』 ①, 앞의 책, p.75.

21) 남전 광언; 1868~1936. 합천 출생, 1875년에 해인사 信海에게 출가하여 백련암에서 수행하였다. 1904년 해인사 주지를 지냈고, 翫虛 仗涉의 법을 이었다. 1921년 선학원을 창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서울 칠보사 창건주 昔珠(1909~2004)의 은사이다.

1916년에는 마침내 대각사를 창건하였다. 1919년에는 주지하듯이 3·1운동의 민족대표로 참가하여 민족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그 결과 1년 6개월의 수형생활을 겪었다. 1921년 8월에는 삼장역회를 출범하여 경전의 우리말 번역과 보급에 노력하였다.

용성이 해인사에 돌아간 때는 1922년 4월이었다. 4월 1일 개설한 구족계, 보살계 법회에서 전계사를 맡았다.<sup>22)</sup> 이 법회에서 古庵(1899~1988)이 구족계를 받았다.<sup>23)</sup>

1925년 10월에도 용성은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수계법회를 진행하였다. 수계법회는 ‘梵網經心地品金剛戒壇’이라는 이름으로 거행되었다. 이때 용성은 호계첩을 직접 제작하여 수계자들에게 주었다. 이 호계첩의 실물石版 목판을 최근 해인사 정보박물관에서 발견하였다.<sup>24)</sup> 재질은 옥석이고, 크기는 가로 60.8, 세로 91.3cm이다. 상단 1열에 ‘大覺應世二天九百五十二年乙丑十月日’이라 하였고, 2열에 ‘梵網經心地品金剛戒壇’, 그리고 3열에 크게 ‘護戒牒’이라는 제목을 새겼다. 호계첩판의 가운데 본문은 『범망경』 「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제10의 내용이다. 이어 ‘羯磨阿闍梨, 傳戒和尚, 教授阿闍梨, 證戒師, 維那, 引禮’ 등의 소임을 새겼다. 왼쪽에는 ‘世尊應世千百年月日受戒弟子收執’, ‘海東道郡山寺’라고 하여 연월일과 수계자, 그리고 지역, 소속 사찰 등을 수기로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호계첩판의 본문 바깥 오른쪽에 ‘伽耶山人 白龍城 製’, 왼쪽에 ‘葦滄居士 吳世昌 書’라고 표기하였다. 용성은 범망경 금강계단을 개설하면서 이처럼 호계첩을 직접 제작하고, 당대의 명필 오세창에게 글씨를 맡겼다.<sup>25)</sup>

22) 이지관, 『한국불교계율전통』 앞의 책, p.353.

23) 고암문도회, 『고암법어록』, 조계종출판사, 2017, p.27.

24) 호계첩의 인출본은 「신발굴자료」, 『백용성대종사총서』 ⑦(앞의 책, p.718)에 수록되었으나, 일체의 설명이 없다. 또한 사진이 작고 인출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렵다.

25) 오세창(1864~1953)은 용성과 함께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였다. 1941년 한용운이 찬한 「용성대선사 사리탑비」의 篆書 글씨를 쓰기도 하였다.



白龍城 製 호계첩(1925. 10)

1929년 4월 초과일에 해인사에서 대규모 수계식을 거행하였는데 용성은 設戒和尚으로 대승계와 구족계를 설하였다.

去 四月 八日을 爲期하여 佛弟子된 우리로서 이 날을 紀念祝賀한 것은 當然한 일인지라 각기 성심성의로 불사를 마춘 것은 재론할 것이 없거니와 특별히 말할 것은 이번 불사를 기회로 본사에서 개최한 設戒大會에 대한 일이다. ... 設戒和尚은 龍城大禪師를 모시어 大乘戒와 具足戒

를 設하야 受戒大衆이 合 二百餘名에 達하얏섯다. 設戒和尚의 至極한 法門과 受戒大衆의 至誠스러운 精進은 본 者로 하여금 이로부터 우리 佛敎界의 一大革新이 이어나리라는 期待가 저절로 마음 가운데에 甧기 게 하얏다. 실로 豫期한 이상의 好果를 얻었다 아니할 수 업다. 이로부터 본사에서는 매년 설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로써 장래 律宗의 後繼를 永續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넓이 또한 길이 이 微意를 알리워 함께 우리 불교계의 淸淨을 기하자.<sup>26)</sup>

1929년의 수계식, 설계대회에서 2백여 명이 수계하였다. 당시는 식민지배가 공고해지고 일본불교 십여 개의 종파가 이 땅에 포교에 열을 올리던 시대였다.<sup>27)</sup> 이러한 현실에서 2백여 명이 수계한 대규모의 수계식, 설계대회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수호하고, ‘일대혁신을 기대하는’ 커다란 전기를 만들었다. 해인사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고무되어 ‘장래 율종의 후계를 영속케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설계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용성은 설계화상으로서 법문을 펼쳤다. 법문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위 기사에 언급된 ‘율종의 영속’이라는 구절에서 짐작해볼 수 있을 듯하다. 즉 한국불교의 자주성과 계율 수호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는 3년 전인 1926년 승가의 대처식육을 반대하는 건백서를 두 차례씩이나 총독부에 제출하는 등 불교의 계율 수호를 무엇보다 중시하고<sup>28)</sup>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용성의 해인사 활동은 1930년대에 들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편 1933

26) 『八日佛事와 設戒大會』, 『佛敎』 제61호, 불교사, 1929, pp.66-67.

27) 1920년 무렵 일본불교의 포교소 등은 전국에 236개소였고, 승려 포교사는 337명에 달했다. 성주현, 「1910년대 조선에서의 일본 불교 포교활동과 성격」,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수요역사연구회 편, 두리미디어, 2005, p.171.

28)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대처식육론과 백용성의 건백서」, 『한국 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pp.200-209.

~1936년 사이에는 용성의 제자 東山(1890~1965)이 해인사 퇴설선원의 조실로 있었다.<sup>29)</sup> 용성은 서울에서 다양한 대각교 활동을 펼치며 저술과 경전 번역에 집중하였다. 한편 선학원의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바쁜 나날이었다. 용성과 해인사와의 인연은 1936년 7월 대각교당을 해인사의 경성포교소로 전환하는 계획에서 다시 등장한다.

禪師는 大覺教를 變更하여 가장 因緣이 깊은 朝鮮佛敎 禪敎兩宗 海印寺 京城 布敎所로 고치고 七月 十六日에 一切 文書 手續을 完了하였는데 當 敎堂에는 動不動産의 재산이 상당하게 있는고로 設立 代表者로서는 禪師 及 門徒 七人의 名義로 하여 當 布敎所를 左右하고 永遠히 불교 布敎事業과 慈善事業을 經營하기로 하였다 한다. 그런데 當敎 敎堂의 設立者 代表의 氏名은 左와 如하다고 한다.

해인사 경성포교당 設立者 代 表 白龍城  
柳道庵 崔昌雲 金警惺 表檜庵 崔雷默 邊月舟<sup>30)</sup>

용성은 1936년 7월 16일 대각교의 재산 일체를 해인사 경성포교소로 전환하는 수속을 완료하고, 포교소 경영의 대표자를 자신과 6명의 문도로 지정하였다. 대각교를 ‘가장 인연이 깊은’ 해인사의 경성포교소로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이해 12월의 기사에는 해인사가 아니라 범어사로 이전 수속을 마쳤다고 한다.

시내 봉익정 二 大覺敎堂이 大本山 海印寺 布敎所로 手續케 되었다고 既報하였으나 그간 當 敎堂과 海印寺와 互相간에 條件附로 交涉하는 것이 彼此 意見 相左로 破裂되야 다시 梵魚寺와 交涉을 進行하여 梵魚寺로 移轉 手續을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當 敎堂의 基地 建物 及 土地와 또 咸陽 있는 華果院의 基地 及 建物 果樹園과 間島 龍井村에 있는 敎堂 及 不動 林野 土地(이상 現時價 十萬圓 假量)를 모다 梵魚寺에 獻納

29) 『동산대종사문집』, 동산대종사문집편찬위원회 편, 범어사, 1998, p.370.

30) 「대각교당을 해인사 경성포교당으로 변경」, 『불교시보』 13호, 1936. 8, p.7.

케 되었으므로 梵魚寺에서는 그 代身 每朔 百圓式 京城布敎所에 支拂하여 經費에 充當케 되었다 한다.<sup>31)</sup>

즉 대각교당의 건물과 토지, 함양 화과원, 간도의 교당 등 당시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산 모두를 범어사로 이전하였다.<sup>32)</sup> 범어사는 매월 1백원의 포교소 운영 경비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해인사로의 이전이 결렬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1936년 당시 해인사에서는 주지를 선출하였으나 총독부에서 두 차례나 인가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대각교의 해인사 전환이 취소되었다. 한편 대각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급도 해인사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범어사는 19세기 중엽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富刹이었으므로 경제적 부담은 덜했다. 감계를 비롯한 각종 寺刹契 65개 이상이 활동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갖추었고, 주석 승려도 가장 많아 1913년에는 325명, 1926년에는 298명에 달하였다.<sup>33)</sup> 이러한 경제적·인적 역량이 대각교를 범어사 경성포교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용성은 범어사 선원의 종주로 내원암에 머물게 되었고, 이곳에서 동산(1890~1965)에게 계맥을 전수하였다.<sup>34)</sup>

용성은 1940년 2월 24일, 나이 76세, 법랍 61세로 대각사에서 입적하였다. 이듬해 7월 해인사에 <용성대선사사리탑비>(한용운 찬)을 봉안하였고, 1947년 8월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는 용탑선원을 창건하였다. 1994년

31) 「대각교당이 다시 대본산 범어사 경성포교소로 이전 수속」, 『불교시보』 17호, 1936. 12, p.6.

32) 범어사의 경성포교소로서의 대각교당은 1년 남짓 유지되었다. 1938년 2월에는 조선불교선종총림으로 전환되었다. 「백용성대종사 연보」, 『백용성대종사총서』 ⑧, 앞의 책, p.215.

33) 한상길, 『조선후기 寺刹契 연구』, 경인문화사, 2006, pp.361-366.

34) 대각교는 1934년 이후 일제에 의해 유사종교로 지목되는 등 외압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 용성은 은둔의 자세로 대각교를 정리하고 내원암에 머물렀다고 한다. 김광식, 「하동산의 불교정화」,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576-577.



7월에는 <용성조사 행적비>(지관 찬)를 조성하였다.

#### IV. 봉암 월주와 해인사

##### 1. 해인사에서의 전법

봉암과 해인사와의 인연은 1938년부터 시작되었다. 1937년 화과원에서 동안거를 지낸 후 이듬해 1월 10일 곧바로 해인사의 法寶學院 강사로 선임되었다. 이 사실을 적은 1949년 11월의 친필 이력서가 전한다.

1949년 11월 5일 ‘株式會社 海印寺營林公社’라고 인쇄된 용지 4장에 걸쳐 출가, 수학, 안거, 법계, 취직 등을 간략하게 적었다. 이 이력서는 본인의 전 생애를 자세하게 적지 않고 해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해인사영림공사의 常務取締役으로 취임한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해인사와 관련한 이력 전체를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 法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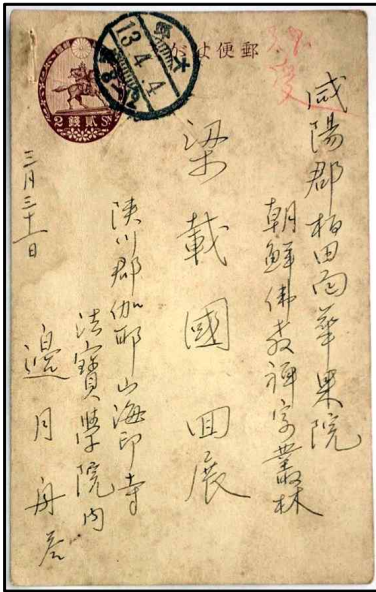
- 4271년 11월 29일 해인사에서 大禪師 법계 품수
- 4273년 1월 29일 右寺에서 中德 법계 품수
- 4274년 4월 20일 右寺에서 大德 법계 품수

##### 就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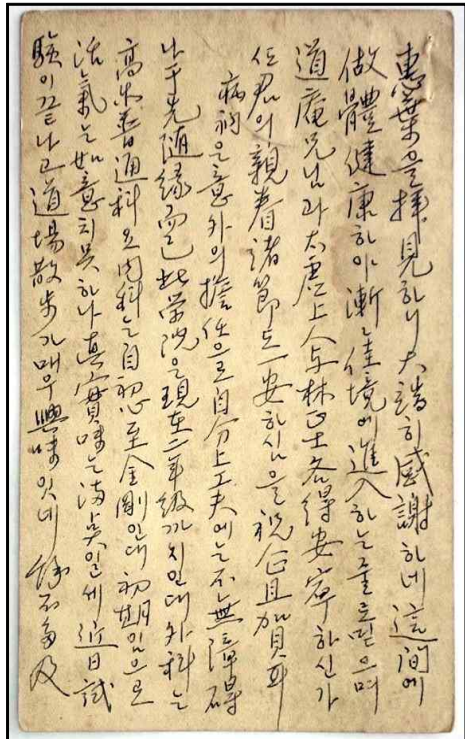
- 4271년 1월 10일 해인사 法寶學院 강사 피임
- 4273년 산청군 大源寺 강원 강사에 피임
- 4277년 4월 25일 해인사 지정 산청포교사에 피임
- 4279년 1월 12일 해인사 교무 피임
- 4281년 9월 1일 해인사 영림공사 常務取締役 피임

당시 봉암은 30세로 출가한 지 9년 만에 본사의 강사가 된 것이다. 봉암은 출가 이듬해인 1930년 백양사에서 柳錦海 강백으로부터 사미과 및 사집과를 공부하였다. 1932년 초부터 1933년 7월까지 쌍계사에서 陳震應 강백에게 『금강경』, 『기신론』, 『능엄경』, 『현담』 등을 두루 공부하였다. 어려서부터 머리가 뛰어나 학창시절 월반과 수석 졸업·입학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였으므로 교학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사로 부임한 지 2개월 남짓 지난 1938년 3월 31일 그는 해인사에서 화과원의 梁載國에게 엽서를 보냈다.<sup>35)</sup> 엽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봉암이 양재국에게 보낸 엽서 (1938. 3. 31)



35) 엽서의 내용은 『백용성 대중사 총서 ⑦』(p.302)에 수록되어 있으나 원본 사진은 최초 공개이다.

惠葉을 拜見하니 大端히 感謝하네. 這間에 做體健康하야 漸漸佳境에 進入하는 줄을 믿으며 道庵兄님과 太虛上人與林正士 各得安寧하신가. 任君의 親眷諸節도 一安하심을 祝企且賀耳. 病納은 意外的 擔任으로 自分上工夫에는 不無障礙나, 于先 隨緣而已. 此 學院은 現在 二年給까지인데 外科는 高等普通科요, 內科는 自初心至金剛인데, 初期임으로 活氣는 如意치 못하나, 眞實味는 滿點일세. 近日試驗이 끝나고 道場散步가 매우 興味있네. 餘不多及.

<피봉 앞> 咸陽郡 柏田面 華果院 朝鮮佛教禪宗叢林 梁載國 回展

<피봉 뒤> 陝川郡 伽耶山 海印寺 法寶學院內 邊月舟 答 三月三十一日

이상의 엽서 문투에서 보면 양재국은 도반 혹은 사제로 짐작된다.<sup>36)</sup> 짧은 글이지만 당시의 강원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범보학원은 ‘二年級’ 즉 2개 반으로 편제되었고 外科는 고등보통과, 內科는 『초발심자경문』부터 『금강경』까지를 교육하였다. 외과는 고등보통과 즉 중고등학교 과정의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당시 주권상실기의 어려운 현실에서 출가자는 대부분 10대 안팎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사찰에서 이처럼 중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였다.

해인사는 일찍부터 학교를 설립하여 전국 사찰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와 강원을 운영하였다. 1913년 조사에 의하면 역대로 해인사의 보통학교는 1906년의 明立學校, 1908년의 海明學校 등 3개가 있었다. 전체 사찰 중 가장 많은 규모로 다음으로 통도사와 기림사가 2개씩이었다. 또한 당시 강원을 전문강당이라고 하였는데 해인사가 7개로 역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통도사가 5개, 동화사와 김룡사가 4개씩이었다.<sup>37)</sup>

다음으로 당시 범보학원은 설립한지 몇 년 안 된 듯하다. 봉암은 “初期

36) 편지의 주인공인 梁載國은 물론 내용 중에 보이는 道庵兄님, 太虛上人, 林正士, 任君 등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화과원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37)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 『청람사학』 11, 청람사학회, 2005, pp.29-38.

임으로 活氣는 如意치 못하나, 眞實味는 滿點”이라고 하였다. 학생의 규모나 강사 수 등도 알 수 없으나 학생은 2개 반으로 편성할 정도, 즉 수십 명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봉암은 “내 공부에는 지장이 없지 않으나 인연을 따른다.”며 강사를 맡았다. 봉암은 1940년 3월 철원 深源寺의 華山經院 중강을 맡을 때까지 2년 남짓 법보학원의 강사를 맡았다.

## 2. 해인사에서의 수계와 소임

봉암은 법보학원의 강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해인사에서 다양한 法戒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용성에게서 계를 받았고, 大禪, 中德의 법계를 받았다.

1938년 4월 8일 금강계단에서 용성율사로부터 계첩, 「불계율연원」을 받았다. 이 「불계율연원」은 일반적인 목판본과는 달리 손으로 직접 그리고 썼다. 계첩은 보통 목판으로 틀과 문양, 제목과 발행처, 전계사, 증명사, 교수사 등의 고정된 문구를 새긴다. 다량으로 발급하는데 편리한 방법인데 먹을 입혀 종이에 찍어낸 후 수계자의 이름을 손으로 적어 넣는다. 그런데 이 「불계율연원」은 목판본처럼 보이지만 틀과 문양을 직접 손으로 그리고 계첩의 내용까지 써 넣었다. 즉 세상에 하나뿐인 계첩이다. 용성이 직접 그리고 썼다고 하는데 가로 122.5, 세로 58.6cm로 작은 크기가 아니다. 대찰 해인사에 목판이 없어서 직접 그린 것이 아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계첩을 만들어주려는 스승의 간곡한 진심이 묻어난다.<sup>38)</sup> 그러기에 本壇 傳戒和尚 龍城律師는 本師和尚을 釋迦牟尼佛, 教授阿闍梨를 彌勒尊佛, 羯磨阿闍梨를 龍種上尊王佛, 그리고 尊證阿闍梨를 十方諸大菩薩이라고 하였다.

1938년 7월 15일에는 해인사에서 하안거를 마쳤다. 강사로 교학을 전수하면서도 안거 기간에는 입방하여 교와 선의 검수를 지켜나갔다. 이때

38) 한상길, 「유물로 보는 봉암 율주의 생애」, 『대각사상』 26, 2016, pp.205-206.

받은 안거증이 전한다. 9월 29일에는 승적첩을 발부받았다. 이어 11월 29일에는 해인사에서 大禪 법계를 받았고 이 날짜의 해인사 승려증이 전한다.

1939년 1월 15일에는 조선불교선종총림에서 안거증을 발급받았다. 조선불교선종총림은 대각교의 후신이다. 대각교는 1936년 12월에는 범어사의 경성포교소로 바뀌었다가 1938년 초에는 조선불교선종총림으로 전환되었다.<sup>39)</sup> 즉 봉암은 조선불교선종총림의 본산인 서울의 대각사에서 동안거를 지냈다. 봉암은 해인사에서 강사 소임을 맡으면서 안거 기간에는 제방을 찾아 참선 안거하였다. 1939년 하안거는 강원도 회양군의 금강산 마하연에서 마쳤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하안거 수행을 마친 봉암은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 강사 소임을 계속하였다. 이듬해 1940년 1월 29일 해인사에서 中德 법계를 받았다. 봉암은 이후 3월에는 철원 심원사의 화산경원 중강이 되었다.<sup>40)</sup> 그런데 앞서 소개한 봉암의 친필이력서에는 “4273년(1940) 산청군 大源寺 강원 강사 피임”이라고 적었다. 1940년의 연도는 적었지만 몇 월 인지는 적지 않았다. 3월에 심원사의 중강이었으므로 대원사의 강사가 된 시기는 하안거 결제가 끝나는 7월 이후의 일이라 추정된다. 대원사는 해인사의 말사이므로 이곳에서 강사를 맡았다는 사실은 해인사와의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41년 4월 20일에는 해인사에서 大德 법계를 받았다. 이후 봉암은 대원사의 강사로 전법에 매진하며 안거 기간에는 이곳에서 멀지않은 화과원에서 수행하였다. 이해 7월 15일 화과원 선원의 입승으로 하안거를 마쳤다. 이듬해 1942년에도 화과원에서 하안거를 지냈다. 봉암이 이처럼 해인사를 떠나 대원사의 강사를 맡았던 사실은 화과원과 밀접한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화과원은 1927년에 대각교의 수행도량으로 창건

39)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대각사상』 20, 2013, pp.78-81.

40) 『불교시보』 56호, 불교시보사, 1940. 3, p.7. 당시 심원사의 주지는 李春山, 화산경원의 강주는 蔡瑞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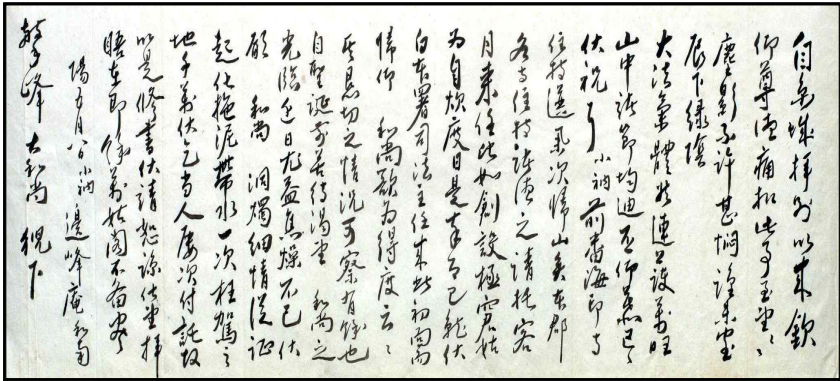
하였다. 수행과 노동을 겸행하였고, 만주 길림의 대각교당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sup>41)</sup> 30명이 넘는 대중이 수행하였고, 1938년 이후에는 조선불교선종총립의 공식 선원이었다. 그런데 1940년 2월 24일 용성이 입적하자 화과원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 무렵 봉암은 철원 심원사 강원의 중장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불교시보』의 기사에 봉암을 심원사 강원의 중장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부임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봉암은 이 경력을 이력서에 적지 않았고, 1940년 그해에 산청 대원사의 강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즉 심원사의 중장에 내정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대원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스승 용성이 갑자기 입적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지자 문도들에게 화과원 운영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봉암은 문도들과 함께 화과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이를 위해 화과원과 거리가 먼 해인사의 강사를 그만두고 가까운 산청의 대원사 강사를 맡았으리라 생각된다. 용성이 입적한 해인 1940년 10월부터 봉암은 1942년까지 3년 동안 화과원에서 안거수행하였다. 1941년에는 선원의 입승을 맡는 등 그는 화과원의 운영의 주역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심원사가 아니라 화과원과 가까운 대원사의 강사를 맡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1943년 봉암은 대각사에 머물며 선리참구원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그가 다시 해인사로 돌아온 것은 1944년 4월 25일이다. 이때 해인사가 운영하는 산청포교소의 주지에 선임되었다. 이 무렵 봉암이 통도사 극락암

41) 화과원은 2017년 11월 국가의 현충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국가보훈처의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우리 독립군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인 백용성선사께서 조성한 화과원으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설물임. 추모내용; 화과원은 3·1독립만세운동 불교계 대표이자 독립유공자이신 백용성선사가 항일민족운동과 불교개혁운동을 실천한 주요 거점으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고 상해 임시정부와 중국 용정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임.

의 경봉에게 보낸 편지 3점을 2016년 12월에 발굴하였다.<sup>42)</sup> 각각 1944년 5월, 8월, 12월에 보낸 편지이다. 5월에 보낸 편지 중에 산청포교당의 소임을 맡았다는 내용이 있다.



봉암이 경봉에게 보낸 편지(1944. 5. 8)

小衲은 저번에 해인사 주지 선거 때문에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군의 각 사찰 주지와 스님들의 청탁으로 지난달에 와서 소임을 맡았는데,<sup>43)</sup> 비유하자면 사찰을 창설하는 것과 같아서 군색함이 극히 심합니다. 스스로 밥을 하며 날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sup>44)</sup>

42)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극락암의 경봉선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근현대불교의 고승 관련 편지가 수천 점 이상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용성의 편지를 새로 발견하여 『백용성대중사총서』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신발골자료」, 『백용성대중사총서』 ⑦, 앞의 책, pp.258-260.

43) 필자는 편지에서 밝힌 ‘소임’을 해인사의 주지 소임이라고 이해하였다. 내용 중의 ‘本郡’을 함천군으로 보고 함천군의 각 사찰 주지와 碩德들이 청탁하여 소임을 맡았으므로 곧 해인사의 주지 소임이라고 이해하였으나(한상길, 「유물로 본 봉암 월주의 생애」, 앞의 글, pp.205-207) 오류이다. 이 편지의 걸봉에 “山淸郡 山淸面 塞洞 布敎所內 邊峰庵”이라고 쓰여 있다. 즉 본군은 산청군이고 소임은 산청 불교포교소의 주지 소임이다.

44) “小衲前番海印寺住持選舉次 歸山矣 本郡各寺住持諸德之請托 客月來任 比如創設

봉암은 “해인사 주지 선거 때문에 산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당시 해인사 주지는 卞雪醵였다가 이해 1944년에 白景霞로 교체되었다.<sup>45)</sup> 주지가 바뀌면서 봉암은 본사에서 산청포교소로 옮겨갔다.

산청포교소의 주지를 맡아 어렵게 꾸러가며 경봉을 초빙하는 편지를 보냈다. 봉암은 이해 11월 화엄산림을 개설하는 등<sup>46)</sup> 포교와 전법에 힘을 쏟았다. 이후 1946년 1월 12일 봉암은 해인사의 교무로 취임하였다. 자세한 사정은 전하지 않으나 교무 소임을 맡으면서 강원 강사까지 담당하였을 것이다. 교무로 있던 1947년 8월 23일 봉암은 해인사 용담선원의 「龍塔禪院創建上樑記」를 작성하였다.

#### 용담선원창건상량기

무릇 법계 六相<sup>47)</sup>의 삼라만상은 인연을 좇아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스승이신 용성대화상은 세상에 머무신지 77년 동안 여러 중생을 제도하셨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40여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警懼師兄은 스승을 모시는 법도가 지극함에 이르렀다.

기미년 3·1운동 때에 스승께서는 일제에 의해 옥중에 갇혀 지내시게 되었다. 그때 사형은 3년간 옥바라지하기를 마치 하루와 같이 했다.

백운산 화과원을 창건하시고, 사리탑과 비석 등을 건축한 것은 모두 사

極寤 姑爲自炊度日 是奉而已”

45) 이지관 편저, 『가야산 해인사지』, 가산문고, 1992, p.952. 한편 봉암이 강사를 지낼 당시 해인사 주지는 변설호였다. 변설호는 1938년 3월 주지로 부임하여 1944년까지 연임하였다. 1938년 봉암의 강사 선임과 1944년 산청포교소로의 이주 등이 변설호의 재임 시기와 일치하고 있어 봉암과 그와의 관련을 짐작할 수 있다.

46) “우리 교당은 어제 화엄산림을 비로소 결집하여, 읍내 뜻있는 信士와 信女들이 운집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세계에 대해 대략 이야기했으나 병어리염소를 면하지 못했으니 부끄러움이 몹시 심합니다.(本教堂昨日華嚴山林始結 邑內有志信士 信女雲集 粗說華藏 然未免啞羊 慚愧莫甚)”, 「봉암이 경봉에게 보낸 편지」, 1944년 12월 1일자.

47) 六相: 화엄종에서, 萬有의 모든 법이 여섯 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음을 이르는 말. 總相, 別相, 同相, 異相, 成相, 壞相의 여섯 가지.



형의 공로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봉향각 건립을 도모하여, 올 봄부터는 도편수 이화백과 함께 명월대를 함께 번창시켜 건축하니, 8월 6일 본원에 24칸 기둥을 세운 그날 상량식을 거행하게 되었으니 용성스님 문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을 것이다.

이에 대들보를 들어 올려 동쪽의 만월계를 보고,  
 대들보를 들어 올려 남쪽의 환희계를 바라보며,  
 대들보를 들어 올려 서쪽의 극락세계를 보고,  
 대들보를 들어 올려 북쪽의 무우세계를 보며,  
 대들보를 들어 올려 위쪽의 내원계를 쳐다보고,  
 대들보를 들어서 내려 아래쪽의 향수해를 비추어 보게 하였다.

대들보가 그 장소에 안치되니 三際가 상즉하고,  
 지방이 서로 융섭하고, 겹겹이 서로 비추고, 생각마다 원용하게 되었다.  
 앞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이후에 천 가지 재앙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종문에 일어나리라.  
 고승의 후덕함이 극진하여 널리 법계를 적시니 그 무궁무진함을 헤아려  
 본다.

때는 불기 2974년 단기 4280년 정해(1947년) 8월 23일  
 龍城後人 봉암 월주 삼가 짓다.<sup>48)</sup>

용담선원은 1947년 8월에 건립되었다. 1941년 「용성대선사 사리탑비」를 봉안한 자리에 용성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는 선원을 창건하였다.

1948년(40세) 9월 1일, 봉암은 해인사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해인사 영림공사의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었다. 9월 30일, 주식회사 개업을 알리는 「告白文」을 배포하였다.

48) [용담선원 창건 상량기], 『신발굴자료』, 『백용성 대종사 총서 ⑦』, 앞의 책, pp.489-495.

## 告白文

伽倻山の靈峯을 玄武로 載한 우리 海印寺는 一千有二百年의 歷史를 갖고 있으며 周圍의 三千三百餘 町步의 寺有林은 古德의 心血을 傾注하여 蔚然히 造成하였었던바 數年 前に 不幸히 倭賊의 戰禍와 愚民의 濫伐로 因하여 蕭條히 疎野하여짐을 現 山內 四部大衆은 憤然히 覺醒하고茲에 株式會社 營林造成公社를 創設하여 官의 登記를 完了하고 綱領의 趣旨 目的을 達成토록 邁進하기 爲하여 關係 官廳의 諸位와 地方 有志 諸賢을 招請하여 今日 이에 開業式을 舉行하는 바이오니 三寶 慈尊께서 哀愍히 덕이사 證明하여 주시옵소서.

綱領 一, 綠化養林 二, 勝景保護 三, 增産報國 四, 利用厚生 此等 趣旨를 徹底히 認識하고 實踐코자 하오니 脫線되는 行爲가 毫釐라도 없도록 護念하여 주심을 仰願하오며 此等 事業은 또한 畢竟 三寶護持에 圓滿 廻向코자 함을 盟誓하나이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九月 三十日  
株式會社 海印寺 營林公社  
社株 一同 代表 某甲 焚香謹白<sup>49)</sup>

영림공사는 당시 3,300여 町步에 이르는 사유림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그 강령에 “1. 綠化養林, 2. 勝景保護, 3. 增産報國, 4. 利用厚生”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작성자 이름은 없고, ‘株主一同代表 某甲’이라고만 하였는데 봉암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상무취체역을 맡았으므로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봉암은 해인사에서 강사를 맡으며 직접적인 인연이 시작되었다. 여러 해의 안거를 거쳐 대선, 중덕, 대덕의 법계를 품수하였다. 그의 교학과 수행 이력은 해인사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지닐 정도였다. 더구나 사유림을 보호 계발하는 영림공사의 책임자로 선임될 만큼 事判의 능력을 인정

49) [고백문, 주식회사 해인사 영림공사], 『신발굴자료』, 『백용성 대종사 총서 ⑦』, 앞의 책, pp.496-497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영림공사가 ‘綠化養林, 利用厚生’의 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산림 운영은 여전히 난제였던 것 같다. 당시는 나무로 땀감을 하던 시절이라 마을사람들의 무단 벌목이 다반사였다. 벌목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1955년 무렵 절에서는 산지기를 고용하여 화재와 벌목을 감시하였고, 학인들도 자주 산에 올라가야 했다.<sup>50)</sup>

봉암의 해인사 활동은 이 이후는 알려진 바가 없다. 영림공사를 운영하는 한편 강사로서의 전법활동은 계속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1955년 8월 26일 정화운동의 와중에서 봉암은 직인과 장부 등 일체의 서류를 비구 측에 인계하였다고 한다. 이 즉시 해인사를 나온 봉암은 진주의 해인대학 교수가 되어 1970년까지 15년간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였다.<sup>51)</sup>

### 3. 봉암에 대한 평가

봉암은 1938년 법보학원의 강사를 시작으로 1955년까지 18년 동안 해인사에 머물렀다. 영림공사의 책임자를 맡기도 했지만 해인사에서의 봉암은 강사로서의 위상이 가장 컸다. 당시 강원의 강사는 주지보다 격이 높았다고 한다.<sup>52)</sup> 1950년대 이후 해인사에서 공부한 여러 수행자들의 증

50) “그 당시만 해도 산불이 많이 났어요, 나무가 많은 큰 산에는 자연발화도 됩니다. 바싹 마른 가지가 바람에 서로 쓰대 가지고 불이 나기도 해요. 대부분은 방화(放火)가 많았어요. 왜냐면 나무를 땀감으로 쓰던 시대였으니까. 마을마다 산에서 나무 해다가 이제 때는 게 주었던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벌목을 그대로 두면 산림보존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 살림살이를 다 맡아하는 이가 영암스님이었어요. 아주 그 사찰 운영 달인이고 그런 걸 아주 정확하게 처리하셨어요. 산을 지키기 위해 산감(山監), 산 지킴이를 몇 명씩 따로 월급주고 뒀어요. 또 학인들 가운데 공부 시간 이외에는 산에 나가서 감시하는 일도 많았어요.”(『호암인환스님 회고록, 나의 발심수행장(상)』, 문현, 2017, p.247.)

51) 이수창(마성), 앞의 글, pp.136-139. 김순석, 앞의 글, pp.160-176. 한상길, 「유물로 본 봉암 월주의 생애」, 앞의 글, pp.209-216.

52) “해인사 백련암에서 수좌로 계시던 관응스님은 1953년 7월 휴전이 이루어지자 해인사 내에 설립된 해인대학의 강사로 활동하시게 된다. 당시 불교계에서 강사

언에서 봉암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雨龍<sup>53)</sup>의 회고이다.

「옴마니반메훬 기도 체험」

내가 출가하여 해인사 강원의 학인으로 있었을 때, 월주스님이라는 사숙님이 계셨습니다. 예식에 밝고 경에도 밝았으며 정진도 잘 하신 분이셨는데, 강원의 학인들이 글을 못 외워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서 끙끙거리는 것을 보고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두텁고 박복한 말세 중생으로 태어나서, 업장 참회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까불기만 하고 있으니, 공부에 무슨 진척이 있겠느냐? 옛날 어른들은 다라니를 열심히 외워 업장을 소멸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나는 다라니를 외워 업장 소멸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옴마니반메훬’ 육자주(六字呪)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절 마당을 거닐든 밭에 가든 예불을 하러 가든 공양을 하든, 경전공부를 하는 틈틈이 육자주를 놓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소리 내어 외웠고,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만 했습니다.<sup>54)</sup>

우룡은 1950년대 초반, 강원에서 만난 봉암을 “예식에 밝고 경에도 밝았으며 정진도 잘 하신 분”으로 기억하였다. 특히 “다라니를 외워 업장을 참회하라.”는 봉암의 가르침은 자신이 평생 ‘옴마니반메훬’ 육자주를 외우며 업장을 참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明星<sup>55)</sup>의 회고이다.

- 
-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본사 주지 스님보다 격이 높았다. 강사가 그만큼 귀했기 때문이다. 『인연의 江 : 觀應 큰스님의 그림자』, 德海, 소금나무, 2014, pp.50-51.
- 53) 우룡; 울산 학성선원 조실, 경주 함월사 조실. 1947년 고봉을 은사로 출가, 1955년 동산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학봉에게 사집을 수학하고 고봉 문하에서 대교과 수료. 1963년 청암사 전강을 시작으로 화엄사·법주사·범어사 강사 역임.
- 54) 『기도 이야기 -우룡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효림, 2018, pp.21-22.
- 55) 明星; 운문사 회주, 운문승가대학원 원장. 합천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행을 은사로 득도. 1952년 동산화상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선암사 강원 대교과 졸업, 1966년 자운화상을 계사로 비구니계 수지. 청도 운문사 강원 강주 및 주지(1977~1998)

나는 1952년 4월, 봄에 해인사 국일암으로 출가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화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이라서 비구승, 대처승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같이 살던 시절이었습니다.(중략) 입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미니계를 받았어요. 임환경스님이 계를 설하면서도, 수계사는 최범술로해서 전해 주더라고요. 최범술은 그때 해인사 주지였고, 임환경 스님은 노장스님이었는데 최범술의 은사였지요.(중략) 강백으로 유명한 변월주를 본 기억이 있어요.<sup>56)</sup>

단편적인 기억이지만 봉암을 ‘유명한 강백’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합천 용흥사 묘관의 증언이다.

나는 출가한 다음 해(1947년)부터 해인사 강원에서 학봉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과 사집을 배우다가 6·25전쟁이 터져 중단되었지요. 후에 해인사의 대처승 강백으로 유명한 변월주스님에게서 『능엄경』과 사교를 보다가 정화불사가 시작되어 공부가 중단되었지요. 그때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 기념으로 변월주와 같이 찍은 사진도 갖고 있어요.<sup>57)</sup>

묘관은 한국전쟁 후 해인사에서 봉암에게 『능엄경』과 사교를 배웠고, 공부를 마치고 그와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1일 스님으로부터 사진 파일을 전해 받았다. 사진 상단에 ‘海印寺 法寶學院 楞嚴修了紀念 佛紀 2981. 3. 13’이라는 기록이 선명하다. 중앙의 좌정한 분이 봉암이고 뒷줄 왼쪽이 묘관이다.

56) 『자운대율사』, 김광식 엮음, 자운문도회, 불광출판사, 2017, p.369.

57) 『자운대율사』, 앞의 책, pp.379-380.



해인사 법보학원 능엄경 수료기념(1954. 3. 13)  
봉암(중앙), 묘관(뒷줄 왼쪽 첫 번째)

이어서 조계종 원로의원 印幻(1931~2018)의 회고는 당시 해인사와 봉암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전한다.

해인사 강원 첫 해(1955년)에 나는 노전 소임을 받았어요. 노전패에 들었어, 노전은 큰 범당을 책임 맡아요. 여타의 작은 범당 맡은 이는 부전

이라고 해. 노전, 부전이 이렇게 달라요. 노전은 당시에 법당하고 그 뒤 팔만대장경각 이 둘을 책임 맡아요. 그래서 3명이 노전패야, 그때 함께 한 노전스님이 종현스님, 태연스님이었어요. 당시 학인들은 궁현당과 관음전 큰 방에 머물렀어요. 관음전은 입 구(口)자 모양인데, 큰 방 끝에 운허스님과 변월주스님이 계셨어요. 변월주스님은 대치스님 강원 때부터 계시던 노장 강사예요. 아주 유명한 강사요, 학자로 이름이 난 분입니다.<sup>58)</sup>

이와 같이 봉암은 ‘해인사의 유명한 강사, 학자로 이름 난 분’이었으나, 1955년 당시에는 강의나 법문을 일체 맡지 않았다고 한다.<sup>59)</sup> 또한 1950년대 후반에 해인사에서 공부한 宗眞(해인사 울원)도 당시 봉암을 만났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역시 이때도 강의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sup>60)</sup> 앞에서 제시한 법보학원의 능엄경 수료 기념사진이 1954년 3월에 촬영하였으므로 아마도 이때가 해인사에서의 마지막 강의였던 것 같다.

## V. 맺음말

해인사는 법보종찰이다. 조선초인 1398년(태조 7) 고려대장경을 봉안하면서 대장경이라는 법보를 간직한 으뜸 사찰로 자리매김해왔다. 현전하는 유일한 대장경에 대한 자긍심과 한국불교 전통의 수호라는 책임감은 절의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다.

용성과 봉암이 주석했던 1879년부터 1955년의 근현대 역시 이러한 노

58) 『호암 인환스님 회고록, 나의 발심수행장(상)』, 앞의 책, p.240.

59) 1955년 무렵 해인사의 강주는 耘虛(1892~1980)였다. 인환도 학인의 신분으로 『치문』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호암 인환스님 회고록, 나의 발심수행장(상)』, 앞의 책, pp.251-252.

60) 한상길, 「유물로 보는 봉암 월주의 생애」, 앞의 글. pp.209-210.

력이 계속되었다. 개항을 맞아 서구문명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외래 종교가 극성을 이루었지만 해인사의 수행자들은 굳건히 불도를 지켜나갔다. 1899년 鏡虛는 해인사에서 結社를 시작하여 전통불교의 수행가풍을 진작하였다. 이러한 전통과 가풍을 계승하여 용성은 ‘伽倻山人’을 자처하며 대장경을 보수하였고, 戒壇을 열어 인재를 배출하였다. 또한 원당암의 미타회, 백련암에서의 설법, 약수암 불화 봉안법회 등을 통해 수많은 수행자들을 인도하였다. 1929년에는 2백 여 명에게 대승계와 구족계를 내려 ‘불교계의 일대혁신’을 이룩하였다.

봉암은 스승 용성의 뜻을 이어 해인사에서 전법에 매진하였다. 1938년 서른의 나이에 법보학원의 강사가 되어 교학을 펼쳤다. 이후 1955년까지 18년 동안 강사로서 후학양성에 큰 업적을 남겼다. 강원도의 강사가 본사 주지보다 더 존경받았던 시절 봉암은 『초발심자경문』, 『금강경』, 『능엄경』에 이르는 다양한 교학을 전수하였다. 한편 1944년에는 산청포교소의 주지, 1948년에는 영림공사의 상무를 맡는 등 사관의 소임에도 충실하였다. 봉암에게서 교학을 배운 여러 수행자들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커다란 동량이 되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를 ‘유명한 강백’으로 평가하였다. 1955년 정화운동의 와중에서 봉암은 해인대학의 교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비록 해인사를 떠나게 되었지만, 이곳은 해인사에서 설립한 대학이었으므로 넓게 보면 해인사 인연의 연장선상이 되는 셈이다. 이후 1970년까지 15년간의 해인대학 교수 시절 봉암은 해인사에서처럼 여전히 한국불교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불법을 전하였다.



## 참고문헌

- 이지관 편저, 『가야산 해인사지』, 가산문고, 1992.
- 동산대종사문집편찬위원회 편, 『동산대종사문집』, 범어사, 1998.
- 이지관, 『한국불교계율전통』,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 한상길, 『조선후기 寺刹契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德海, 『인연의 江 : 觀應 큰스님의 그림자』, 소금나무, 2014.
-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백용성대종사총서』, 동국대출판부, 2016.
- 김광식 엮음, 자운문도회, 『자운대율사』, 불광출판사, 2017.
- 『호암 인환스님 회고록, 나의 발심수행장(상)』, 문현, 2017.
- 고암문도회, 『고암범어록』, 조계종출판사, 2017.
- 효림, 『기도 이야기-우렁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2018.
-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대처식육론과 백용성의 건백서」, 『한국 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 \_\_\_\_\_, 「하동산의 불교정화」,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 \_\_\_\_\_, 「유교법회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 \_\_\_\_\_,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립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대각사상』 20, 2013.
- \_\_\_\_\_,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 김순석,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활동 - 해인대학과 마산대학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26, 2016.
- 성주현, 「1910년대 조선에서의 일본 불교 포교활동과 성격」,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수요역사연구회 편, 두리미디어, 2005.
- 이수창(마성),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22, 2014.
-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 『청람사학』 11, 2005.
- 한보광, 「용성스님의 전반기의 생애 -산중수행기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창간호, 1998.
- 한상길, 「유물로 보는 봉암 월주의 생애」, 『대각사상』 26, 2016.

Abstract

A Study on Bong-am Wol-ju in the Haein-sa Temple

Han, Sang-gil

(Academy of Buddhist Studies in Dongguk Univ.)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ongam and the Haein-sa. Since the Haein-sa was the headquarters of the master Baek Yong-seong, Bongam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is temple early on. In his lifetime, the Haein-sa was the most important temple for training, propaganda, and edification.

First of all, I looked at the whole life of Bongam and examined how the activities in the Haein-sa in Yongseong and the execution and propagation of Bongam in this temple. During the search process, I was able to find some new materials, such as made of stone Hogye-cheop, Bongam's postcard and his photo. Finally, I understood the status of Bongam by the testimony of several monks who were taught by him in the Haein-sa. Bongam was a lecturer in the School of Beopbo 30 years old(1938), taught the Buddhist scriptures. He served as a lecturer for 18 years until 1955, teaching monks great achievements in Buddhist education. At the time he taught, such as the Diamond Sutra, Shurangama Sutra.

In 1944, he became a propagator of Sanchung temple, and in 1948, he was also an executive of the public corporation of Younglim and adhered to administrative affairs. Many monks learned from him became a big figure in Korean Buddhism today. They consistently evaluated him as a famous scripture professor. Since 1955, Bongam has started a new life as a professor at Haein University. Since then, as a university professor for

15 years until 1970, Bongam still teaches Buddhism and preaches as in Haeinsa.

Key words

Bongam Wolju, Byeon Jin-Seol, Baek Yong-seong, Haein-sa Temple, Baegyang-sa Temple, Hogye-cheop, Haein University, Masan University.